

대촌동 주민 “주민센터 공사 재검토 해달라”

“현 위치 어린이 사고 우려 주민증가 맞춰 규모 키워야” 남구청 “통장단 논의된 사항”

급속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 대촌동 주민들이 신축 중인 주민센터의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집단 민원을 냈다.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주민 수에 맞게 주민센터를 다시 짓자는 것이다.

특히 민원을 낸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과 가까운 곳에 현재 들어서고 있는 주민센터가 경우를 따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집단이거주의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른 마을에 포기하겠다는 민원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대촌동 19동 통장인 송운근씨를 비롯해 주민 209명이 ‘대촌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시공정지 및 설계변경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현재 신축 중인 주민센터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맞물려 향후 차량 동행량이 늘어나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근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규모가 작다”면서 “인근의 혁신도시와 공단 활성화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대촌지역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규



광주시 남구 대촌동 주민들이 현재 신축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위치와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흰색 점선 안은 현재 대촌동 주민자치센터 공사현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설 중인 주민센터가 인구 6000여명을 감안해 설계됐는데,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향후 주민 수가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송씨 등은 “주민자치센터 내부에 목욕

탕, 운동시설, 직능단체실, 회의실 등 만들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구청은 “인근 학교의 총 학생 수 150명 중 90%가량은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고, 10%가량만 걸어서 학교에 가고 있어 큰 위험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26일 대촌동 통장회의 진정

서 안전 논의했지만 상당수 통장이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포충로에 들어서고 있는 대촌동 주민센터는 사업비 19억여원을 들여 2752㎡ 규모로 신축중이며, 민원실, 회의실, 작은도서관, 농업인상담소, 중대본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월남2지구 등 5곳 지적재조사

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월남2지구 등 5개 지구를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지구는 동구 월남2지구, 서구 세하2지구, 남구 양과지구, 북구 덕의지구, 광산구 유계지구 등 1973필지, 187만8357㎡다. 광주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

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각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26억여 원으로 31개 지구(1만2901필지, 957만6000㎡)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5월 현재 23개 지구를 완료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市, ‘먹는 샘물’ 24일까지 수거 검사

광주시는 먹는샘물 소비가 늘어나는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를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검사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50개 항목) 적합 여부 ▲표시기준 적합 여부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

게 된다.

검사결과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련법에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조업 허가기관에 통보해 유통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처분을 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먹는샘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대형 및 소형마트 등에서 25종의 먹는샘물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 1개 제품에

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확인돼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석준 생태수질과장은 “먹는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는샘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

‘복지제도 알리단’ 양성

광주복지재단의 ‘제2기 복지제도 알리단 양성과정’이 16일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복지제도 알리단 양성과정은 시민들의 복지제도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자 18명의 양성과정 참여자는 30~60대로 구성됐으며, 특히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인생이모작 세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양성과정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 강의 방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오는 7월 19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매주 진행된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복지제도 알리단은 8월부터 1기 복지제도 알리단과 함께 시민을 직접 찾아가 꼭 알아야 할 복지제도 및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모두가 편한 버스정류장’ 확대

휠체어 공간·점자블럭 설치 2021년까지 105곳 운영

광주시가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향상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버스정류장을 확대 설치한다.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사업은 버스정류장의 굴곡보도와 가로화단 등 장애물을 제거해 휠체어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버스정차 위치 표시, 점자블럭 설치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5곳에 무장애 버스정류장을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올해는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20곳에 추가로 설치하며, 오는 2021년까지 105곳이 운영되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장

래인단체, 활동가, 자치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무장애정류장 설치 대상 및 정비내용을 협의했다.

또 4월에는 협의내용을 토대로 저상버스가 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무장애정류장 설치가 시급한 20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광주시, 장애인단체, 자치구 등은 앞으로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무장애정류장 설치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 불편한 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개선사업은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사업추진시 현장에서 적극 협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2호선 기술협력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은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마곡동 공사 본사에서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운영 관련 기술협력, 국가R&D사업 공동 연구, 향후 해외 도시철도분야 사업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공사와 연구원은 공동 추진중인 ‘경전철용 무선급전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을 과기정통부의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에 제안키로 하는 등 다양한 정부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책 동향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 1호선 전동차의 노후화된 장치 및 부품을 개량하기 위한 공동 연구 사업도 추진한다.

김성호 사장은 “그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산수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참가자 접수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에 최종 선정돼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소설에서 찾은 인문학 고갱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강의로 6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산수도서관 다목적실에 진행된다.

박해용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소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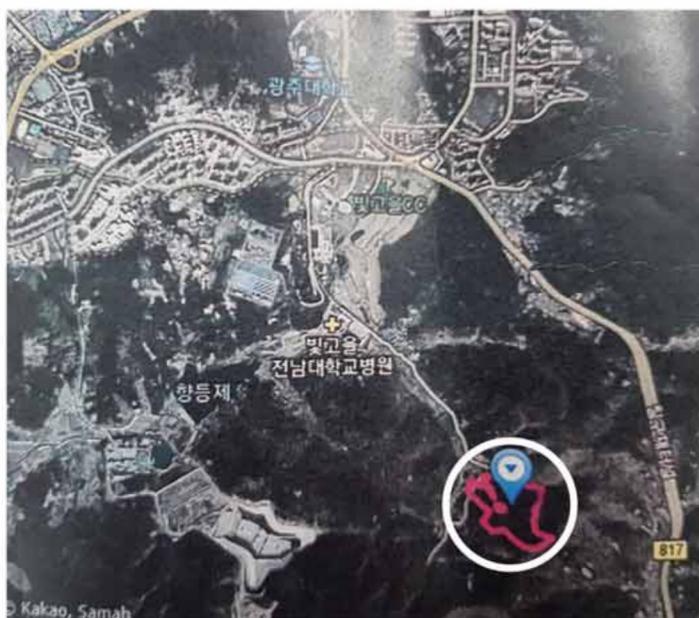
표가 강사로 진행하며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심옥순 인문지행 대표, 나희덕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등이 ▲자아발견과 새로운 만남 ▲제주 올레 여행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16일부터 방문 또는 전화(613-7811)로 접수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0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 최고 투자물건 입니다 ※